

대표팀서 부상 입은 김진수...소속팀 전북도 '울상'

콜롬비아전서 허리골절 부상...최소 6주 출전 불가능
K리그1 8위 처진 전북, 핵심 자원 이탈에 '닥공' 실종

축구 국가대표 왼쪽 수비수 김진수(31·전북)가 허리 골절상으로 최소 6주 이상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즌 초반 고전하고 있는 소속팀 전북 현대도 울상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4일 콜롬비아와 평가전에서 부상을 당한 김진수 선수는 정밀검사 결과, 요추 2번 좌측 횡돌기(Transverse Process) 골절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팀 의료진 소견으로는 대략 6주의 치료와 휴식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 2개월 뒤에 경기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는 위르겐 클린스만(독일)의 한국 사령탑 데뷔 무대였던 콜롬비아전에서 공을 경합하다가 부상을 입었다. 그라운드에 쓰러져 한동안 고통스러워하던 김진수는 결국 들것에 실려 퇴장했다. 전반 24분 교체됐다.
2014 브라질월드컵, 2018 러시아월드컵을 앞두고 부상으로 최종엔트리에서 낙마한 아픈

기억이 있어 김진수의 부상은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다. 김진수는 지난해 2022 카타르월드컵을 통해 월드컵 무대를 처음 밟았다.
28일 우루과이와 한 차례 더 평가전을 치르는 대표팀은 김진수를 대신해 설영우(울산)을 불러들였다.
김진수의 큰 부상으로 K리그 소속팀 전북 역시 울상이다.
지난해 K리그1 역대 최초로 6연패에 도전했다가 울산 현대의 벽에 가로 막힌 전북은 심기 일전해 이번 시즌 정상을 탈환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그러나 시즌 초반부터 주축 선수들이 줄부상을 당하고 있다.
아심차게 영입한 공격수 이동준과 일본 출신 미드필더 아마노 준이 부상으로 앞서 이탈했는데 수비의 한 축을 책임지는 김진수마저 쓰러진 것이다. 김진수는 팀 내에서 리더 역할도 하는 만큼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진다.
출발부터 암울한 분위기다. 경쟁자 울산(4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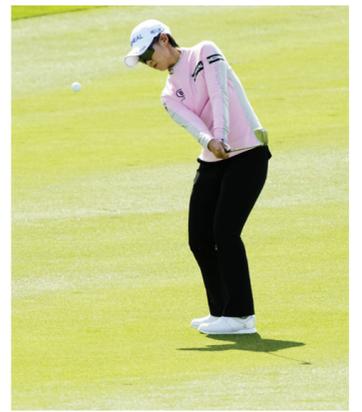


24일 오후 울산 남구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콜롬비아의 경기, 김진수가 부상으로 들것에 실려나가고 있다.

승점 12)이 개막 4연승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전북은 1승1무2패(승점 4)로 8위까지 처졌다.
'닥공(닥치고 공격)' 축구도 실종됐다. 전북

은 4경기에서 4골로 경기당 한 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김상식 전북 감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뉴스



안나린(27)이 23일(현지시간) 미 애리조나주 골드캐니언의 퍼스틴션 마운틴 GC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드라이브 챔피언십 첫날 14번 그린에서 칩샷하고 있다.

안나린, LPGA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 4위로 마무리
셀린 부티에, 연장 접전 끝 우승

안나린(27)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총상금 175만 달러) 마지막 라운드에서 4위로 대회를 마쳤다.

안나린은 27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골드캐니언의 슈퍼스티션 마운틴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만 5개를 잡아내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를 친 안나린은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안나린은 경기 후반 선두권을 맹추격했지만, 15번홀부터 18번홀까지 모두 파를 기록해 아쉬움을 남겼다.

마지막 날 4타를 줄인 고진영(28)은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해 공동 5위에 올랐다.

4라운드에서 1타를 줄이는 데 그친 유해란(22)은 16언더파 272타로 공동 7위에 자리했다. 유해란은 LPGA 투어 데뷔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셀린 부티에(프랑스)는 연장 접전 끝에 조지아 홀(잉글랜드)을 제압하고 LPGA 투어 통산 3번째 우승을 거머쥐었다.

부티에는 홀과 함께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로 공동 선두로 마쳤다. 홀은 연장 첫 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뉴스

키움, 정찬현과 2년 총액 8억6천만원에 FA 계약

계약금 2억 연봉 2억...옵션 최대 2억6000만원

키움 히어로즈는 27일 오전 서울 고척스카이돔 구단사무실에서 FA 정찬현(33)과 계약기간 2년, 계약금 2억원, 연봉 2억원, 옵션 최대 2억6000만원 등 총액 8억6000만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찬현은 광주제일고를 졸업한 후 2008년 신인드래프트 2차 1라운드(전체 1번)에서 LG 트윈스에 지명 받아 프로 첫 해부터 1군에서 활약했다.

2021시즌 중 트레이드를 통해 키움 유니폼을 입은 정찬현은 그해 11경기에 출전해 3승3패 평균자책점 3.99를 기록하며 시즌 후반 마운드에 힘을 보탰다. 2022시즌에는 20경기에 출전해 5승6패 평균자책점 5.36을 기록했다.

2022시즌을 마치고 FA자격을 취득한 정찬현은 최근까지 소속팀을 찾지 못했지만 개인 훈련을 통해 몸을 만들어 왔고, 이달 초부터는 독립리그 성남 맥파이스에 합류해 실전 피칭을 소화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정찬현 측은 구단에 계약기간 2년에 계약금 1억5000만원, 연봉 1억원, 옵션 최대 1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키움은 정찬현의 선수로서의 가치를 평가해 선수 측 제시액보다 더 큰 규모의 계약서를 내밀었다.

정찬현은 "구단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구단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형욱 키움 단장은 "정찬현이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찬현이 이러한 시간을 밑바탕 삼아 선수단과 구단, 팬들이 같이 가고자 하는 길에 많은 힘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부다페스트 월드컵 단체전 우승



여자 에페, 난징 월드컵 단체전銀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 정상에 섰다.
오상욱(대전광역시청), 김정환, 구본길(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준호(화성시청)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26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단체전 결승에서 독일을 45-44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8강에서 캐나다를 45-26으로 가깝게 꺾은 한국은 4강에서 루마니아를 45-30으로 제압했다.

결승에서 만난 독일은 상대로도 중반까지 앞서나간 한국은 막판 역전을 허용하며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오상욱이 39-40으로 뒤진 상황에서 김준호에 이어 마지막 주자로 등장, 상대 마티아스 사보를 물리쳐 극적인 역전을 일궈냈다.

전날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구본길은 단체전 우승으로 이번 대회 두 번째 메달을 손에 넣었다.

최인정(계룡시청), 이해인(강원도청), 송세라(부산광역시청), 유단우(전남도청)가 나선 여자 에페 대표팀은 중국 난징에서 열린 월드컵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한국은 결승에서 프랑스에 35-45로 져 2위에 자리했다.

스텔리니 감독 대행 체제 된 토트넘...손흥민에 미칠 영향은

첫 지휘봉 마르세유전서 안와골절 콘테 수술 후 대행 때는 벤치 앉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경질하고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감독 대행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손흥민의 입지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토트넘 구단은 27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콘테 감독과 상호 합의 아래 결별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크리스티안 스텔리니가 감독 대행, 라이언 메이슨이 수석코치를 맡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이번 시즌 종료 때까지 토트넘이 치를 리그 10경기를 지휘하게 된다. 스텔리니 대행의 최대 과제는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인 4위 이내 순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 축구팬들의 관심사는 스텔리니 체제에서 손흥민의 입지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다.
손흥민은 스텔리니가 콘테 대신 처음 지휘봉을 처음 잡은 지난해 11월1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마르세유전에서 안와골절 부상을 당했다.
이어진 카타르 월드컵 시즌 이후 스텔리니는 콘테가 담낭 제거 수술 후유증으로 이탈리아에서 휴식을 취한 지난날 20일부터 4경기를 지휘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스텔리니는 손흥민을 선발에서 배제하고 교체로 투입했다.
스텔리니는 손흥민을 벤치에 앉히고도 웨스트햄과 첼시를 연파하는 등 성과를 냈다. 손흥민 역시 자국을 방문 뒤 웨스트햄전에서 교체

투입된 후 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첼시전에서도 후반 코너킥 공격 때 예리한 크로스로 케인의 골에 관여했다.
과거 이 같은 경기내용을 봤던 만큼 감독 대행을 맡은 스텔리니가 손흥민을 다시 교체 요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콘테 감독 휘하에서 전술적 요인으로 인해 손흥민이 이번 시즌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왔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는 만큼 오히려 스텔리니 대행 체제에서 손흥민의 역할이 퇴색할 수도 있다.
우선 손흥민으로서의 지난 24일 콜롬비아전 두 골에 이어 28일 우루과이전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통해 스텔리니에게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뉴스



'한국 간판 수비수' 김민재, 이적설 불편함 드러냈지만...PSG도 거론

프랑스 레퀴프 "PSG, 김민재 영입 후보 타깃"

한국 축구의 간판 수비수 김민재(나폴리)가 연이어 빅클럽의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어 이번에는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PSG)이다.
27일(한국시간) 프랑스 레퀴프에 따르면, PSG가 중앙 수비수 포지션에서 추가적인 영입 플랜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김민재가 그 중 하나로 거론됐다.
다음 시즌부터 밀란 슈크리니야르(인터 밀란)가 합류할 예정이지만 최근 1개월 동안 경기 출전이 11분에 불과해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허리 부상이 원인이다.
김민재는 이탈리아 세리에A 데뷔 첫 시즌부터 리그 정상급 수비수로 발돋움하며 나폴리의 선두 질주에 크게 기여했다. 우승이 유력하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8강에 진출했다.
PSG는 네이마르,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로 이어지는 세계 최고 공격 라인을 보유한 팀이다. 그러나 다른 정상급 클럽들과 비교해 허리와 수비진은 탄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름 이적시장에서 수비수 보강을 원하는 유럽 주요 클럽들의 김민재에 향한 관심은 당연한 듯 보인다.
앞서 김민재의 맨유 이적 가능성에 대한 보도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3월 A매치를 위해 대표팀에 합류한 김민재는 국내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다들 아쉬웠지만, 이적설은 그냥 뉴스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4-5년 동안 계속 이적설이 나오는데, 이제는 팀에 더 집중하고 그런 것에 영향을 안 받고 싶는데 솔직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계속 그렇게 하니깐 불편하고 적응이 안 되는 게 사실"이라며 "지금 중요한 경기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럽 언론은 "중앙 수비수가 필요한 구단들은 올해 여름 김민재 영입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류다.
월드클래스 수비수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루치아노 스팔레티 나폴리 감독은 "김민재는 진정한 세계 최고 수비수다. 한 경기에 놀라운 일들을 적어도 20번 정도 보여준다"고 극찬했다.

뉴스



뉴스